

파이프라인 복구와
대화 여부가 변수일부 되돌려진 리스크
프리미엄

WTI는 전일 대비 1.3% 오른 \$101.39로 마감했음. 장중 한때 약 5% 급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되돌려짐. 다만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해당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를 우회해 홍해를 원유를 보내는 핵심 수송로로 사우디산 원유 약 400만bpd의 수출 차질이 빚어짐. 여기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 군사시설을 다시 공격했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입구의 페림섬까지 장악하면서 홍해 수송 리스크가 커졌으며, 주말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도 하루 한 자릿수 수준까지 줄어 최근 10일 평균 14척을 크게 밑도는 등 공급 우려를 키움.

남탓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가 상승 책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 경유가격이 치솟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에너지 시설 타격 때문이라며 본인이 벌인 이란 전쟁 여파가 아님을 강조.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 타격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 한편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란이 매우 급하고 절실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한다며 미국이 대화를 응할지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명시. 블러핑인지 실제 대화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확인시켜준 점은 유가 상승을 제한.

현물 프리미엄 상승

아시아 정유사들은 중동 공급 차질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 서아프리카산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음. 미국산 현물 프리미엄도 지난달 배럴당 약 \$13 수준에서 최근 약 \$24까지 뛰었고, 중국 독립계 정유사들 역시 이란산과 러시아산 공급 감소로 대체 원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음. 정제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주요 정유사들이 최대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원유 실수요를 지지하고 있음. 시장은 현재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흐름을 최대 800만bpd로 추정하고 있어 전쟁 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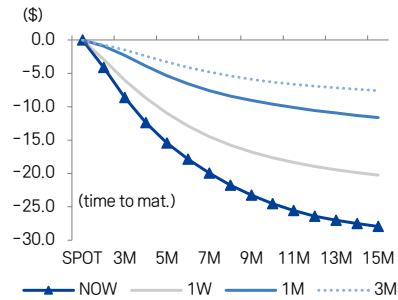
사우디 파이프라인 복구와
대화 여부에 주목

한편 연준은 이번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로 올릴 가능성이 높게 반영되고 있으며, 8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가운데 유가가 다시 \$100을 넘어선 점이 추가 긴축 기대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를 돌파하면서 달러와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고, 이는 원유 선물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임. 다만 현재는 금리 부담보다 중동의 실제 물류 차질과 현물 프리미엄 상승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사우디 파이프라인 복구 여부와 호르무즈와 홍해 상황이 단기 WTI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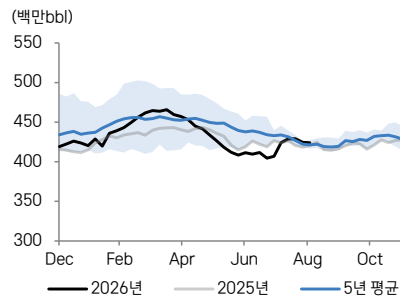
Energy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	%		
WTI Crude Oil	Oct	\$/배럴	102.25	104.95	100.53	101.39	△ 1.34	+1.3%	1346608	1958576
Gasoline	Oct	\$/갤런	3.337	3.460	3.296	3.317	△ 0.010	+0.3%	248867	354260
ICE Brent Crude Oil	Nov	\$/배럴	107.11	109.8	104.8	105.68	△ 1.07	+1.0%	1875278	2688584
Natural Gas	Oct	\$/MMBtu	2.868	2.911	2.849	2.896	△ 0.065	+2.3%	398778	1812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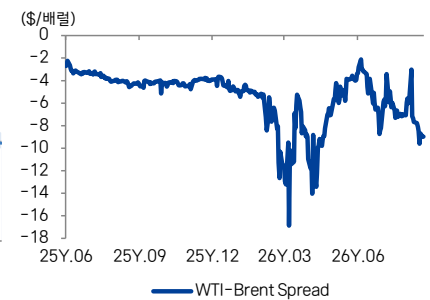
WTI Forward Curve



미국 주간 원유 재고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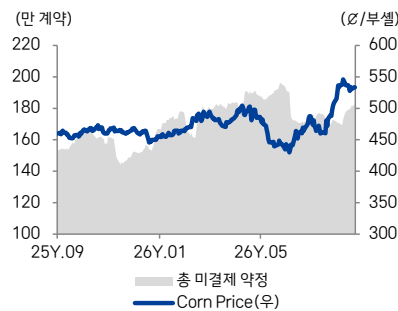
WTI-Brent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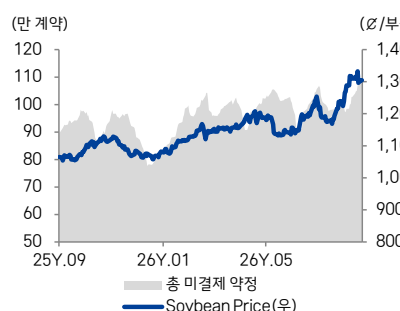
Agriculture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Cent	%		
CBT Corn	Dec	¢/bu	530.5	536.5	526.25	533.25	△ 3.00	+0.6%	713,843	1,836,425
CBT Soybean	Nov	¢/bu	1296.75	1309.75	1292	1304.25	△ 7.75	+0.6%	459,622	1,082,140
CBT Wheat	Dec	¢/bu	729	734	710	722	▼ 3.25	-0.4%	164,533	485,321
ICE Coffee	Dec	¢/bu	283.55	292.75	281.5	290.5	△ 4.80	+1.7%	24,755	150,091
ICE Sugar	Mar	¢/bu	19.22	19.32	18.86	19.06	▼ 0.07	-0.4%	343,435	1,288,315
ICE Cotton	Dec	¢/bu	86.2	86.51	84.36	84.55	▼ 1.51	-1.8%	59,758	38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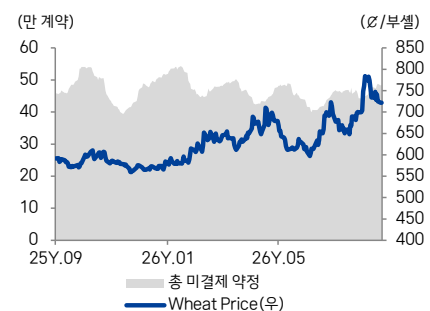
C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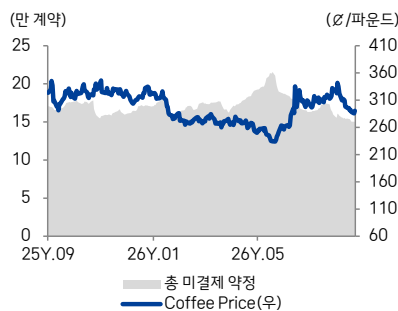
Soyb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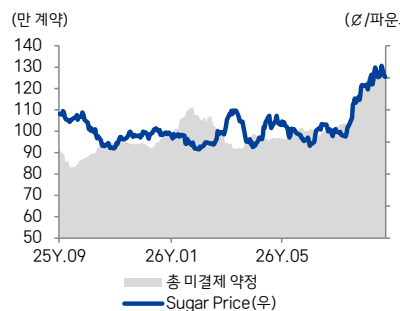
Wh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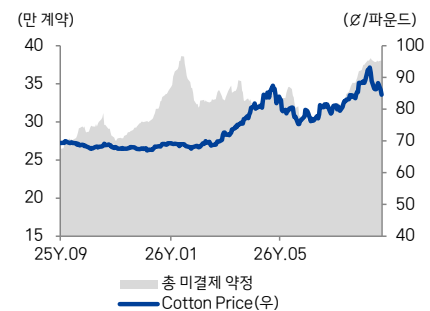
Coffee



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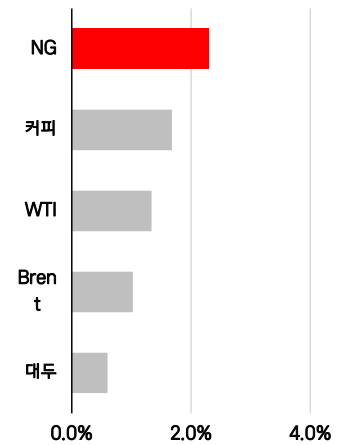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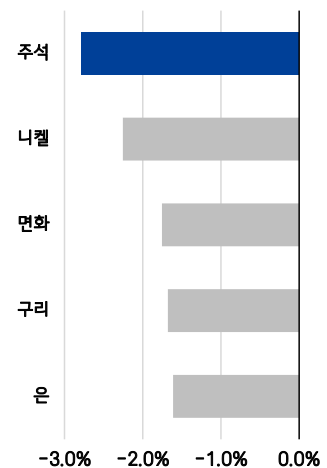
원자재 히트맵

	일간	주간	월간	월초대비	3개월	6개월	1년	연초대비
구리	-1.7%	-3.5%	-1.1%	-2.0%	+1.6%	+13.0%	+39.1%	+12.7%
알루미늄	-0.3%	-2.0%	-0.2%	+0.1%	-4.2%	-4.6%	+20.6%	+8.3%
니켈	-2.3%	-4.8%	+1.0%	-2.3%	+6.3%	+21.1%	+28.3%	+21.7%
아연	-0.6%	-0.9%	-0.7%	-1.3%	-5.1%	-1.7%	-6.7%	-6.4%
납	-0.8%	-2.3%	-2.9%	-3.1%	-9.2%	-4.8%	+6.1%	-1.9%
주석	-2.8%	-5.9%	-7.7%	-6.1%	-5.9%	+15.1%	+48.3%	+27.9%
금	-1.3%	-2.8%	-1.9%	-3.3%	-1.5%	-13.7%	+13.6%	-3.2%
은	-1.6%	-3.9%	-2.6%	-4.9%	-10.0%	-19.3%	+43.5%	-12.0%
WTI	+1.3%	+10.8%	+24.5%	+18.9%	+37.3%	+25.2%	+64.2%	+78.0%
가솔린	+0.3%	+3.2%	+14.2%	+9.1%	+33.0%	+32.9%	+80.0%	+92.5%
Brent	+1.0%	+8.9%	+22.1%	+16.8%	+36.2%	+22.5%	+61.1%	+75.6%
NG	+2.3%	-2.7%	+4.0%	-1.8%	-10.9%	-18.4%	-25.5%	-23.0%
옥수수	+0.6%	-0.7%	+10.3%	-0.8%	+20.5%	+8.9%	+13.7%	+15.8%
대두	+0.6%	-0.4%	+9.4%	+1.3%	+13.8%	+14.3%	+20.3%	+22.5%
밀	-0.4%	-1.6%	+4.7%	-6.7%	+16.1%	+12.1%	+21.8%	+27.8%
커피	+1.7%	-1.7%	-7.6%	-6.7%	+10.2%	+7.3%	-11.9%	-7.6%
설탕	-0.4%	+0.1%	+8.2%	+1.2%	+25.6%	+19.5%	+14.1%	+21.1%
면화	-1.8%	-2.1%	-0.3%	-9.2%	+8.7%	+16.4%	+21.8%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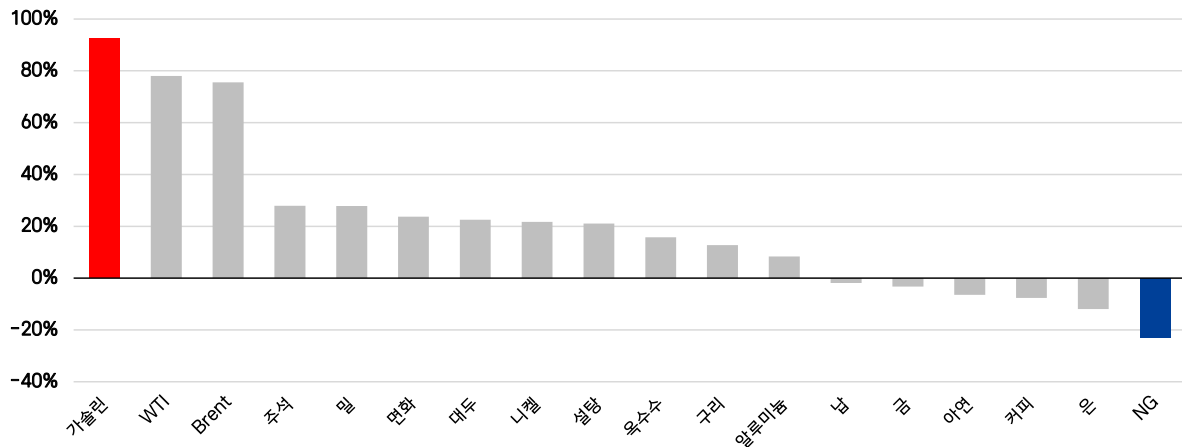
일간 상승률 Top 5



일간 하락률 Top 5



연초대비 상승률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파생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